

‘경제성·실용성·편의성’ 3박자 모두 갖췄다

기아차 SUV 전기차 ‘니로EV’ 시승기

국내 최초 64kWh 배터리 기준 1회 충전 385km 주행
차선이탈·후측방 경고 시스템 등 첨단 신기술 탑재
AVN 시스템 통해 실시간 충전소 정보 제공 ‘눈길’

최근 빠르게 성장 중인 국내 전기차 시장에 새 바람을 몰고 올 ‘역대급’ 차가 탄생했다.
지난달 7일 공식 출시된 기아차 ‘니로EV’는 경제성, 실용성, 편의성을 모두 갖추고 기아차 최초로 항속거리 385km(64kWh 배터리 기준)를 달성한 친환경 스포츠유틸리티차(SUV)다.
익히 알려진 대로 전기자동차의 최대 약점은 짧은 주행거리인데 니로EV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80km 이상에 달해 전기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모델 중 하나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17일 니로EV 시승행사(기아자동차 제공)를 가졌다.
시승구간은 광주공장에서 화순군 도곡까지 왕복 33km.

차량 탑승에 앞서 니로EV의 외관을 살펴봤다. 폐쇄형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은 깔끔하면서도 기하학적 무늬가 더해져 미래지향적이었으며, 프론트·리어 범퍼 가니쉬, 인테이크 그릴 등 곳곳에는 친환경을 상징하는 블루 컬러가 포인트로 적용돼 차별화된 인상을 받았다. 전기차 충전구는 앞쪽에 나와 있었고, 충전 타입은 콤보 방식이었다.
차량 내부 역시 고급스러우면서 산뜻한 느낌이 돋보였다. 다이얼식 SBW(S

hift By Wire : 전자식 변속장치)는 기존 차들의 기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블루·레드·그레이·에코그린·브론즈·화이트 6가지로 선택 가능한 무드조명은 매력적이었다. 또한 도어트림 가니쉬, 에어벤트, 시트, 콘솔 암레스트, 스티어링 휠 등에도 마찬가지로 EV 전용 신규 칼라팩(블랙하이그로시+블루패턴)이 적용돼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완성했다.

SUV 차량의 가장 큰 매력인 실내 거주 공간은 니로EV의 최대 강점 중 하나였다. EV 동급 최고 수준의 내용량이라는 홍보 문구처럼 트렁크&라기지 공간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전장 4천375mm, 휠베이스 2천700mm로 큰 차체 덕분에 운전할 때나 뒷자리에 탔을 때도 좁거나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

실내 거주공간을 결정짓는 전폭, 휠베이스가 다른 경쟁 전기차보다 우세하다보니 자연스레 적재 공간도 451L(VDA 기준)로 뛰어났다. 심지어 기존 니로 하이브리드(427L)보다도 넓은 수준이며, 커플, 가족 등 다양한 고객에게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온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보니 계기판에 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서야 시동을 걸린 것을 알아차릴 정도로 소음이



기아자동차가 동급 최대 실내 공간과 다양한 첨단 주행 신기술로 상품성을 극대화해 내놓은 친환경 전용 SUV 니로의 전기차 모델인 '니로EV' 시승차량이 17일 오전 화순 도곡 인근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제공

전혀 없었다. 주행가능거리, 에너지흐름도, 속력이 한눈에 들어오는 슈퍼비전 클러스터(7인치 칼라 TFT LCD)는 간결하고 세련된 느낌이었다.
휴대전화 무선충전 시스템에 휴대폰을 충전시키고 가볍게 페달을 밟았다. 전기차는 오로지 주행거리만 중요하다는 편견과는 다르게 100km까지 빠르게 다다랐고, 부드러운 코너링을 경험하며 달리는 재미도 쏠쏠했다. 스포츠 모드로 바뀐 뒤 본격적으로 속력을 내보니 디젤 기반 SUV 못지않은 힘있는 주행성능을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SUV답게 탁 트인 시야 덕분에 운전하기 편했던 것도 또 하나의 매력이었다.
미래지향적 친환경차에 어울리는 다

양한 첨단 주행 신기술도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줄여줬다. 니로EV에는 ▲차량이 운전자의 방향 지시등 조작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보음을 발생시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LDWS)’ ▲주행 중 후측방 사각지대의 차량과 후측방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보하는 ‘후측방 경고 시스템(BSD)’ 등 프리미엄 세단 못지않은 편의사양이 탑재되어 운전이 쉽고 안전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에어컨을 틀었더니 운전 모드를 변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행가능거리가 실시간으로 바뀌었다.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제제 및 외기온도에 따라 바뀌

는 주행가능거리를 보니 더욱 신뢰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AVN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충전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매우 유용했다.
충전소 상세주소와 연락처는 물론 사용자가능·사용중·이용불가 현황과 연결 타입, 급속 충전기 개수, 요금 타입, 운영 시간까지 표시됐다. 기존 내연기관 운전자가 전기차를 탈 때 느낄 수 있는 충전에 대한 불편함, 걱정을 해소하는 것은 이처럼 정확한 수치와 충전소 정보일 것이다.

시승을 해본 니로EV는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동력성능, 운전자를 배려한 첨단 편의사양에 전기자동차의 장점인 효율성까지 돋보였다. 특히 출퇴근용이 아

니라 중장거리 여행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EV시장은 충전 인프라 확충, 보조금 지급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예전보다 훨씬 쉽게 전기차를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요즘, SUV의 장점인 대용량 적재성과 주행성능은 유지한 채 전기자동차의 장점인 경제성을 극대화한 니로EV는 분명 매력적이다. 5인 가족이 여유롭게 패밀리카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는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친환경차 풀라인업(HEV·PHEV·EV)을 완성한 RV 명가 기아차에 경제성, 공간성, 편의성을 모두 갖춘 니로EV가 기록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10주년 비전선포 20일 ICT·콘텐츠 세미나도 열려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열) 개원 1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이 20일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진흥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성과를 조망하고, 새로운 10년의 비전선포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세미나와 2부 기념식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ICT와 콘텐츠 분야 연사초청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지역과 연계한 육성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평창올림픽 개·폐회식과

남북정상회담에서 혼합현실(MR) 기술을 활용한 3D영상을 선보인 닷밀(mill)의 정태훈 대표를 비롯해 동양대학교 김석기 교수(전 모폰웨어리블스 대표)와 가천대학교 서태건 교수(전 부산정보산

업진흥원장)가 강연한다.
기념식은 전남도립국악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오후 5시부터 시작하며, 개최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및 비전선포 순으로 열린다.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가정에서 스마트한 절전요령

- ① 미니태양광으로 직접 전기 생산하여 생강고 등 전기제품 전력 대체
- ② 형광등 대신 LED조명 사용하기
- ③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융합산업 일자리 창출 산·학·연 협력 강화

한국광산업진흥회, 32명 구성 협의체 운영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광융합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한다.
17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급변하는 인력수급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광융합분야 맞춤형 인력자원을 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융합산업 인력자원개발협의체(SC)’ 운영 단체로 지정 받아 광융합분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자원개발 협의체를 구성해 운

영 중이다.
이에 따라 광융합산업 인력자원개발 협의체는 SC와 SC+로 운영된다. SC는 전국지역을, SC+는 광주지역의 특화된 광융합산업 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C는 전남도립대 이용우 교수, SC+는 호남대 양승학 교수가 각각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주요 구성원은 동부라이

텍, 삼성전자, LG전자, 한국광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두원공과대, 전남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폴리텍V대학 등 산·학·연 32명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광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법률”의 시행에 맞춰 광융합분야 전문 일자리창출 기관으로서 광융합분야의 기업 수요에 맞는 일자리 정책과 교육으로 양질의 인재를 공급하고 광융합산업이 일자리 창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주)스카이 장례식장

문의:062)951-1004(천사)

스카이 장례식장

스카이 장례식장

품격있는시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차이
부담없는 장례비용!!

1,000여대 동시 주차 / 수완동 자동차 매매단지 입구